



행2:46-47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Daily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누리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대를 내 안에 세우고,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여정은 하루하루로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하루가 어떠한지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계신다.

주일. 월 ~ 금/토

주일에 시작해서, 월요일에 현장 가서부터, 금요일 시대가 시작되는, 모든 하루가 '날마다'이다.

성전 - 힘쓰는

그런데, 초대교회 분들의 '날마다'의 특징이 뭐냐면, 성전에 매일 모이기를 힘쓴다. '매일' 뭔가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류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다. '기도를 안 하려고 해보는데, 오히려 그게 더 힘들다'라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오지 않을까?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데 그렇게 힘쓰는 시간이 지금인 것이다. 모든 유희와 거짓 속임수를 단칼에 끊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는 시간 말이다.

본문에 보면 (46절)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다고 되어져 있다.

집 - 눅22:19 "그리스도"

눅22:19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다는 것은 무엇일까? 날마다 집에서 뭘 기념하고 있는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에서 포럼하고 있는 거다. 내가 오늘도 완전 속아서 다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하셨어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다. 누군가는 오늘 있었던 전도 현장의 포럼을, 또 누군가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을 것이다.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기념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구원받은 자의 이 날마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날마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오늘날인 거다. 내가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시다라며 현장에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누워 자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함께를 날마다 누린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언약 잡고 가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느냐?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쓰시느냐?

고전1: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전도자로 쓰고 계심을 확인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는데, 그 전도는 대체 무엇인가?

벧전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선포하기 시작한다. 무엇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던 인생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라고 했을 때,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선포함으로 되어진다는 거다.

주일 강단에서도 말씀 받았다. 베드로가 가진 인성과 인격으로 말씀의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만한 인간이 되나? 내 인격이, 내 인성이, 내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가 아니라, 나는 심부름할 뿐인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임하는 거다. 또한 내 영혼에 임하는 거다.

오늘도 초대교회 식구들이 받았던 그 날마다의 축복이 결국 우리의 날마다일 것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아멘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된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의 날마다가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은 아닐까?

행19:9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강론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0절) 그렇게 2년 동안 강론을 하니,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 우리가 원래 누구였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로 해결되었다라는 이 답을 받게 된 것이다. (11~19절)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악귀가 떠나가고 흑암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되어져 있다. 이와 같이 아주 신실하고 반듯하며 의로운 이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였더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즉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지역을 장악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릴 잡힌 자들을 해방시키신 거다.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거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니라.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까? 왜 서밋 타임을 가져야 할까? 그 말씀이 힘이 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전도자가 가는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다. 그 현장은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거하여지니까 하나님이 그 세력을 장악해 버리신 거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다면, 우린 뭘 해야 할까?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현장가면 된다.

우리가 받을 우리의 날마다이다.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응답을 매일 약속하신다.

행5:42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내 인생이 어떻게 갈까', '나 어떻게 살면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떠할까?'라고 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 나의 날마다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오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 분들의 날마다의 고백과 나의 날마다가 일치되면 어떨 것 같은가?

행복/살맛 난다

행복! 이번 주 기도수첩에는 이렇게 표현하셨다. '살맛 난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찾고 계시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살맛 나는 인생이다.

말씀 - 현장(나)

이를 보고 말씀과 현장이 맞다, 말씀과 내가 딱 맞다고 한다. 그때부터 살맛 날 거다. 행복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행복이 와장창 무너지는 사건이 생겼다.

창3:1-6 요8:44 계12:9 롬3:23

우리의 행복을 완전히 빼앗아 간 사건(창3:1-6). 그 존재, 너희 아버지(요8:44). 사단, 마귀, 온 천하를 피는 자(계12:9). 이 존재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가고, 도둑질해가고, 완전히 다 무너뜨린 거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존재였는데,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롬3:23)이라고 말씀하신다.

창3:1-6

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은 아심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요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계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롬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 모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스도, 이 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증거한 거다.

나에게, 내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는 그 길, 사단과 완전히 결별되어지는 유일한 그 길이 내 인생의 날마다에서 전달되고, 선포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다.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박살 낼 거다. '너네 행복을 도둑질해 가버렸던 그 존재를 내가 완전히 박살 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모든 행복을 다 회복시키겠다'고 하셨다.

출3:18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그 피로만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이 완전히 해결되어진다고. 그 피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신다.

강단에서 칭의라는 말씀을 받았다. 어떻게 의롭게 되어드리느냐? 그 피가 발림으로써, 이 피 말고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목사님, 착하게 살아야 하지 않나요?'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성령 인도받는다고 말하면서 24시간 계속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먹질을 한다면, 이게 성령인도를 받는 건가. 게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성령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그런 방향일까?

그러한 것(착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저주 재앙이 지나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 문설주에 피 바를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 피가 발라지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진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 죄 있는 채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스스로 피 흘려 죽으신 거다. 그 피로만 죄 문제 끝.

사7:14 (임마누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떠나서 왔던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이름을 임마누엘로 와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름이 그냥 임마누엘. 이름 자체가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라고 아예 와버리신 거다.

왕, 제사장, 선지자 /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수많은 왕,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선지자가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고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그들이 참왕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단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단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시며 휘장을 찢어버리신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유월절'. 그래서 세 절기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주일에 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그리고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념하라!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점하고, 눈 뜨면 그 힘을 얻고, 낮에는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는 그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2. 하나님 나라 / 나라 일 / "보좌의 축복"

그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실제로 내 인생에 완전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내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시는 거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다. 내가 안 써먹어서 문제지, 나한테 다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줄게 열리라, 그거 사용해라"고 하신다.

우리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자, 언제? 날마다.

7.7.7

이 축복은 기도로 쓰는 건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7,7,7)의 기도까지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준 보좌의 모든 축복이야.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이야. 그거 열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신다.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이 점점 점점 실상으로, 나의 것으로 딱 다가오게 된다. 기도하고 있을 때.

3. 오직 성령 - 증인

그러면 오직 성령 받아서 권능 받고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행복이 온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있어도 없어도 행복해요'가 되지 않을까?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그거 바울의 고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다.

그래서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거다. 아,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지.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여지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 혼자 살아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다.

다시 행2:46-47 본문을 보자.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더해진다고 하신다. (43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더 앞에 43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원가 특별하고 기이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본문을 보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강단의 말씀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여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다시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늘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날마다 모여서 함께, 집에 가셔도 같이 날마다 되어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다. 제자들을 통해서, 이 날마다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다. 이것이 당장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날마다이고 내일 나에게 일어나는 날마다구나. 난 평생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청년들과 날마다를 누리실 거다.

결론

나는 누구지?

내일도 우리가 하루를 출발할 텐데, 여러분은 누구신가? 하나님 자녀.

나에게 어떤 힘이 있지?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는 어떤 힘이 있는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권세, 권능이 나에게 있다. 잘 생각하셔야 한다. 가진 것도 없고, 불쌍한 '나'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살려버리는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거다.

나 왜 살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면, 그럼 나 왜 살지? 한 단어로 말하면, 세계복음화! 나의 사명? 세계복음화!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 3/10 - 40일간

3월 10일부터 40일간 집중 속으로, 팀별로 3오늘에 들어갈 거다. 40일 하면, 선교대회 직전 주에 끝이 날 건데, 우리의 포커스는 계속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지? 나 무슨 힘을 가지고 있지? 나 왜 살지?'

★ 황금어장 / 사각지대 / 재앙지대

그리고 우리 모두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출 것이냐? 하나님이 토요일(3/8)때 말씀해 주셨다. 나에게 주신 지역이 어디지를 찾으라고 그걸 찾을 거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구원받을 황금 어장이 어디인가요?', '황금 어장인데 우리가 놓쳐서 어디가 사각지대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더 심해져서 어디가 재앙지대까지 빠져 있나요?'라고 질문하셔야 한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그런 지역이 있으실 거다. 이것을 조금 발견하기 위한 40일의 집중. 우리의 포커스가 저렇게 갈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역이 어디냐 청년의 시간표에 2025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 어장이 어디 있는가를 포커스로 두면서 사십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자.

40일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마음껏 누리시고 또 카톡으로 포럼을 하시고 다 끝나고 나면 앞에 나오셔서 증인의 포럼을 하시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빛의 경제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237, 5000종족에 교회를 세우는 그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 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를 증거하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청년들 위에 그들의 산업의 현장 위에 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